

1. 삼관의 흐름(미려관 → 녹로관 → 옥침관)으로 본 순환론

동의보감에 인용된 ‘삼관’의 내용들

『선경』에서는 “등 뒤에 삼관(三關)이 있는데, 뒤통수에 있는 관문을 옥침관이라 하고, 등뼈의 양옆에 있는 관문을 녹로관이라 하며, 수화(水火)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관문을 미려관이라고 한다. 이곳은 다 정기가 흐르내리는 길이다. 이것은 마치 복두칠성의 자루가 한 바퀴 돌 때 상하의 별자리가 순환하는 것이 마치 은하수가 복두칠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신형』, 『내경편』, 『동의보감』)

『취허편』에는 “단련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묘한 기운이 삼관을 통한다. 삼관을 왕래하는 기(氣)는 다함이 없고, 한 줄기 하얀 맥이 니환(泥丸)으로 모여드네. 니환궁(泥丸宮) 위에는 붉은 쇠술이 있는데, 술 안에는 한 덩어리 자금단(紫金丹)이 있다. 이것이 침(玉漿)으로 변화하여 입안으로 흘러드니, 달고 향긋하며 상쾌한 맛이 혀 끝에 퍼진다.”라는 노래가 있다. (『신형』, 『내경편』, 『동의보감』)

『참동계』 주해에 “사람 몸의 기혈이 상하로 순환한다. 이는 마치 밤낮 쉬지 않는 것은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도록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 명산 대천의 물이 고갈되지 않는 것은 산과 강이 땅 속의 구멍을 통해 물을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와 달 역시 같은 이치로 운행한다.”고 하였다. (『신형』, 『내경편』, 『동의보감』)

천지인, 삼재(三才)

삼재	독맥(督脈)		임맥(任脈)	
천(天)	옥침관(풍부)	↑	상단전(인당)	↓
인(人)	녹로관(명문)		중단전(전중)	
지(地)	미려관(장강)		하단전(기해)	

- 개념적 수로서의 ‘3’
 - 삼재(三才), 삼재(三災), 삼합(三合), 삼변(三變), 삼태성¹⁾, 3박자, 정기신
 - 2 + 1 : 새로운 시작, 유동성 / 동쪽, 봄, 木
 - 음양 + α : 매개, 연결의 주체, 음양의 프레임 안에서 유동하는 삶의 주체

독맥과 임맥 그리고 순환론

삼관은 독맥으로 흐른다. 독맥은 잠재된 세계이고 임맥은 현실로 표상된 세계다. 독맥은 발생적 조건이고 음적으로 가려진 세계이고, 임맥은 발생이 실현되어 양적으로 드러난 세계이다. 삼관은 음적 세계의 상징이다. 독맥에 감춰진 삼관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의학의 치유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영역에 대한 조절에 있기 때문이다. 오장을 육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오장

1) 삼태성(三台星) : 국자 모양의 복두칠성의 물을 담는 쪽에 길게 비스듬히 늘어선 세 쌍의 별이다. 서양의 큰곰자리의 발바닥 부근에 해당된다. 태미원에 속하는 별자리이다.

위주의 치료를 행하는 것도 오장에 잠재된 정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한편, 독맥을 양으로 임맥을 음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잠재된 세계인 독맥이 활성화되려면 양기가 필요하고, 드러난 세계인 임맥이 갈무리되려면 음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독맥은 체(體)가 음이고 용(用)이 양이다. 또한 임맥은 체가 양이고 용이 음이다.

독맥은 척추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정수리와 코를 지나 뺨뺨에 이른다. 여기에는 하늘의 기운과 함께 운명에 대한 통찰과 마음을 움직이는 무형적 에너지가 들어 있다. 임맥은 복부 정중선을 타고 올라와 턱에 머문다. 여기에는 땅의 기운과 실제적 삶의 습관, 몸의 물리적 상태가 반영되어 있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독맥에 잠재된 기운(體)은 양기를 타고 올라간다(用). 임맥으로 드러난 기운(體)은 음기를 받아 내려간다(用). 순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잠재된 것은 드러나는 인연과 조우하여 밖으로 나가고, 드러난 것은 수렴되는 기운을 만나 안으로 스며든다. 이 순환 사이클은 셀 수 없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며, 끝없이 중첩되어 있다. 그 과정의 구체성은 알 수 없다. 예기치 못한 우연과 변수로 인해 수많은 이합집산이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독맥과 임맥의 이러한 순환운동은 12경맥의 양경맥과 음경맥의 순환을 대표한다. 임독맥과 12경맥의 원운동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행성들이 순환하는 자연의 운동성과 닮았다. 즉, 주기성을 띠며 움직이지만 불가역적 시간을 전제하며 매번 작은 변이를 일으키며 활동하는 자연의 운동에 빗대어 볼 수 있다. 신형장부도의 삼관은 이러한 순환성과 통한다.

2. 고정된 장부, 흐름으로서의 장부

두 차원의 장부와 순환론

신형장부도에 그려진 장부를 잘 살펴보면 어느 장부도 명확하게 닫힌 경계선으로 표현된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간(肝)은 숨은그림찾기처럼 신(腎)과 담(膽)을 그린 여러 선들 사이에서 드러난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33쪽

신형장부도의 열린 선분과 그 선분에 의해 표현된 장부의 불명확한 영역이 허준이 함께 담아내려 했던 두 공간을 위한 화법(畫法)이었다. 온전히 닫힌 선분으로 사실적 묘사에 치중했다면 해부학적 공간만 있는 것이고, 거칠게 구분해 놓은 불명확한 영역마저 없다면 유동성만 남아 있게 된다. 이 유동성만의 공간은 흔히 경맥(經脈)으로 표현된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34쪽

해부학적 장기	경맥상의 장부
고정된 장부	흐름으로서의 장부
고정	유동
가시적	비가시적

허준은 이러한 경맥상의 공간을 단혀 있는 해부학적 공간과 섞으려 했다. 그것이 바로 신형장부도에 나타난 열린 경계와 불명확한 장부의 영역이다. 살짝 열린 그 틈 사이로 장부들의 기운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신형장부에는 해부학적 장부에 담긴 에너지 ‘정’과 경맥에 흐르는 에너지 ‘기’가 상호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35쪽

한의학에서는 고정된 장기를 인정하면서도 미세한 변이를 다루기 위해 유동성의 장부를 설정한 것이다. 미세한 변이란 장기가 맞게 되는 여러 시절인연과 변수에 의해 발생하는 노화, 감염, 회복, 기능 저하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 교체 등의 변화를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이치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맥상의 장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침과 뜸은 경맥으로 차원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의 기혈 흐름을 조절하며, 한약 역시 경맥으로 귀경(歸經)하여 경맥의 차원에서 장부의 기운을 조절한다. 그리고 경맥의 기운이 잘 조절되면 해부학적인 오장육부도 함께 치유된다. 이는 장부를 해부학적 형태가 아닌 그 기능적 순환으로서 파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능적 순환을 구조적으로 이론화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수많은 임상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오면서 다시 더 합리적인 이론으로 거듭나려 한 한의학의 역사적 배경과 맥을 같이 한다.